



# “국산 명태를 찾습니다”

온난화·부분별 남획에 씨말라  
외국산도 물량 줄어 값 ‘썩썩’  
해수부 ‘명태살리기 복원’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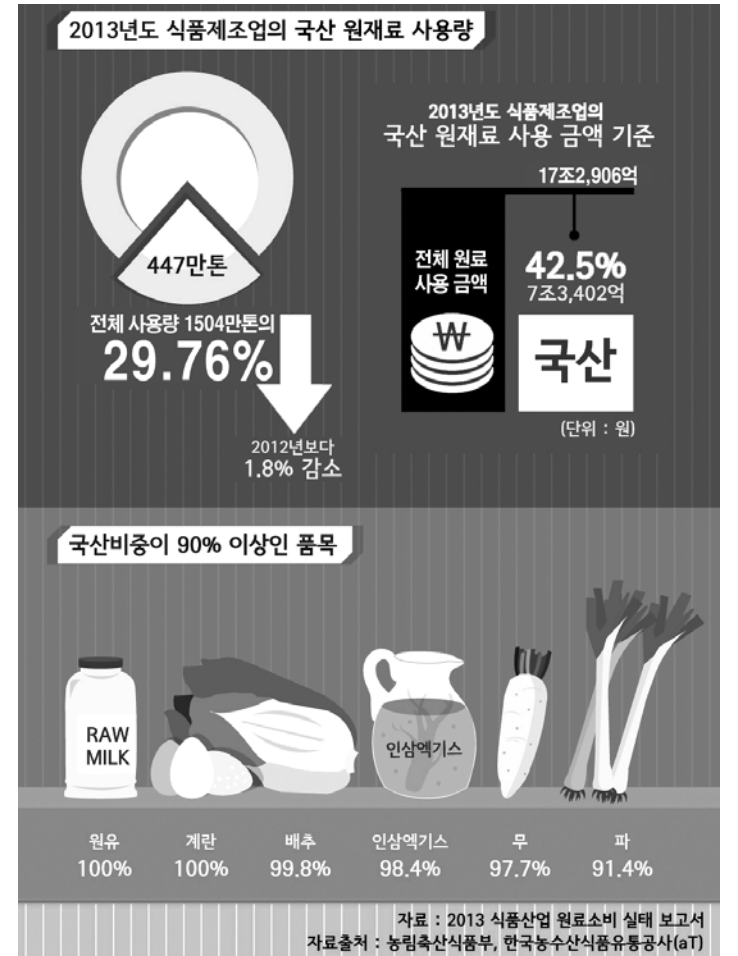
27일 겨울철을 맞아 명태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냉동명태를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겨울철 ‘국민 대표 생선’으로 불렸던 명태가 사라지자 해수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명태 살리기 복원’ 작업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획량이 급감한 국산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 명태 종묘 생산기술과 양식기술을 개발해 2020년부터 국산 명태를 식탁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과도한 남획으로 사라지다시피한 국산 명태를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유통·수산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국산 명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2010년 이후로는 아예 공식 통계조차 잡히지 않을 정도로 명태의 씨가 말랐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며 어근이 북쪽으로 이동한데다, 어린 명태인 노가리의 무분별한 남획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강원도는 ‘동해의 살아있는 명태

를 찾는다’며 국산 명태를 잡아오면 명태의 보존 상태에 따라 5만~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현상금을 걸기까지 했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명태의 90% 안팎은 러시아산으로 총당되고 있다. 캐나다산과 일본산도 일부 공급되고 있으나 일본산 명태 수입은 2011년 원전 사태 이후 크게 줄었다. 문제는 명태 자급이 되지 않으면서 최대 수입국인 러시아의 수출 물량 배정 등의 정

책에 따라 국내 명태값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최근 10년간 명태 수입 추이를 보면 2010년 26만7355t(4억1622만3000달러)로 수입량과 수입액이 최대를 기록한 이후 명태 수입량은 계속 감소했다. 2011년 26만686t(3억9792만6000달러), 2012년 25만1990t(3억6787만9000달러), 2013년 23만3534t(3억5898만3000달러), 2014년 21만5784t(3억8873만달러) 등이었

다. 지난해는 전년에 비해 수입량이 7.6% 감소했지만, 수입액은 6.1% 증가했다. 그만큼 수입 단가가 높아졌다는 말이다. 실제 전체 수입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러시아산은 2012년 22만9101t(2억9866만2000달러), 2013년 20만8602t(2억9007만6000달러), 2014년 18만8998t(3억657만3000달러) 등으로 물량은 감소했지만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명태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동태(종품) 한마리의 평균 소매가격은 2163원으로 1개월전 2123원에 비해 1.9% 상승했다. 최고가격은 3000원으로 한달전 2500원에 비해 20%나 올랐고, 최저가격도 이 기간 1600원에서 1950원으로 21.9% 뛰었다. 그나마 한달 전에 비해 평균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16일부터 설 성수기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분인 4000t의 명태를 시중 가격보다 싸게 공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태는 거레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정보 조회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가공식품 원료 국산 비중 30% 넘었다

농식품부·aT, 2013년 114개 품목 소비 실태조사  
원유·배추 90% 이상... 옥수수 등 34종 10% 미만

국내 가공식품의 국산 농산물 원재료 사용비중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계란, 배추 등 23개 품목은 국산 이용률이 90% 이상인 반면 코코아 가공품류, 설탕 등 34개 품목은 10% 미만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식품제조업체 3500개소를 대상으로 2013년 1년간 사용한 쌀, 밀, 콩, 옥수수, 배설탕 등 114개 품목의 식품제조 원료 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식품제조업 분야의 2013년도 농축수산물 원료 사용량은 1508만이었으며 이 중 31.2%인 470만t이 국산 원료였다. 국산 원료 사용량은 2012년(29.7%) 대비 22만3000t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전체 원료 사용금액 16조4698억원 중 국산은 7조9256억원(48.1%)으로 전년(42.4%) 대비 5854억원 증가했다. 식품 원료 중 국산 원료 비중이 90% 이상인 품목은 원유, 계란, 배추, 인삼, 홍삼, 김 등 23개 품목이다. 23개 품목의 국산 원료 사용량은 329만t으로 114개 품목의 국산 사용량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 국산 비중이 90%를 넘는 품목은 절임식품(94.2%), 김치류(92.7%), 유제품류(90.3%)로 집계됐다. 60~90%를 사용하는 품목은 잼류(67%), 당시럽류(69.5%), 식육 또는 알가공품(71.8%), 특수용도식품(72.2%)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국산 원재료 사용비중 10% 이하 품목은 원당, 타피오카, 백설탕, 팥유, 대두유 등 3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수입원료 사용량은 828만톤으로 전체 수입원료 사용량(1038만t)의 79.8%를 기록했다. 식품제조에서 국산 사용이 증가한 원료는 감자·고구마·마늘·생강·쇠고기 조사됐다. 특히 감자는 전체 사용량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85.9%에서 2013년 93.7%로 높아졌다. 같은기간 마늘은 57.5%에서 75.9%, 고구마는 77.3%에서 88.1%, 쇠고기는 10.7%에서 27.2%로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두는 17.5%에서 14%로, 고춧가루는 42.4%에서 28.1%로 국산사용 비중이 감소했다. 특이한 점은 과일류·유제품의 경우 신선 농산물의 국산 사용비율은 90% 이상인 반면 이들 품목들을 원료로 한 반가공소재 즉, 농축과채즙, 건조야채, 야채분말, 버터 등의 국산 비율은 30% 이하로 매우 낮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국인 하루 쌀밥 두공기도 안 먹는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 178g  
웰빙 영향 잡곡 소비는 늘어

1인당 하루 쌀소비량이 30년 이상 계속 줄어들면서 지난해에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잡곡을 포함한 기타 양곡 소비량은 2년 연속 증가했다. 통계청은 최근 발표한 ‘2014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서 가구부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78.2g으로 전년보다 5.8g(3.2%) 감소해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1970년 373.7g의 47.7%에 불과하며 밥 한 공기를 쌀 100g으로 가정하면 하루에 밥을 두 공기도 먹지 않는다는 의미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980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쌀을 이용한 하루 식사량이 계속 줄어 들고 있다면서 2010년부터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이 200g을 계속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5.1kg으로 전년보다 2.1kg(3.1%) 줄었다. 1인당 연간 기타 양곡 소비량은 8.7kg으로 전년보다 0.6kg(7.4%) 늘어나 2년 연속 증가했다. 기타 양곡 중 잡곡(25.0%), 두류(19.0%), 고구마와 감자 등 서류(3.7%)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잡곡을 중심으로 한 기타 양곡의 소비량 증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쌀과 기타 양곡을 포함한 지난해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73.8kg으로 전년보다 1.5kg(2.0%) 감소했다. 양곡 중 쌀의 비중은 줄었지만 기타 양곡의 비중은 11.8%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1981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며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1967년 196.8kg 대비 37.5% 수준에 불과하다. 농가의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121.3kg이다. 제조업(식료품 및 음료)의 쌀 소비량은 53만4999t으로 전년보다 1.7% 늘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26일 설 명절을 앞두고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와 식품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2015년은 식품안전 무사고 해’로 정한 농협은 오는 2월17일까지 명절 성수용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식품 등의 보관방법,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8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양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윤천	371-9818
윤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침월	673-1600
신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창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82

###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장성군	394-0400	담양군	383-8116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영광군	351-0055	광주광역시							
함평군	324-8111	나주시	336-4759(군) 335-5501(시)	화순군	374-4423	순천시	746-8111	광양시	792-8111
신안군	278-8111	목포시	276-9200	무안군	452-8535	보성군	852-8646(보성) 857-0686(별교)	여수시	692-0997
		남원지국	283-1540	영암군	471-1717	장흥군	863-8822	고흥군	842-2121
				해남군	537-6767	강진군	434-6830		
				진도군	543-0100				
				완도군	554-6677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신문구독_062	예향구독_062
227-9600	220-0551	220-0550